

NYPI 청소년 통계 브리프

Vol.19 2015. 02.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황여정 부연구위원 hj@nypi.re.kr

개요

- 조사목적** ▶ 일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근로환경은 여전히 열악함.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가운데 기본적인 법적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 본 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근거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음.
- 조사대상** ▶ 아르바이트 가능 연령대를 고려해, 전국 17개 시·도의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 중학생 980명(24.4%), 고등학생 3,043명(75.6%), 남학생 2,106명(52.3%), 여학생 1,917명(47.7%), 대도시 1,789명(44.5%), 중소도시 1,569명(39.0%), 읍·면지역 665명(16.5%)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
- 조사기간** ▶ 2014년 6월~7월

■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

● 특성화고등학생,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 경험 보유

-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 조사 결과, 25.1%가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결과는 만 15세 이상 아르바이트 가능 연령대에 포함된 중·고생 4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르바이트가 일부 청소년에게 제한된 이슈가 아님을 시사함.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13.2%, 고등학생 28.9%로 차이를 보였고, 고교 계열별로는 일반고 26.1%, 특목고·자율고 15.4%의 생애경험율을 보인 데 비해 특성화고는 52.5%로 나타나, 특성화고등학생은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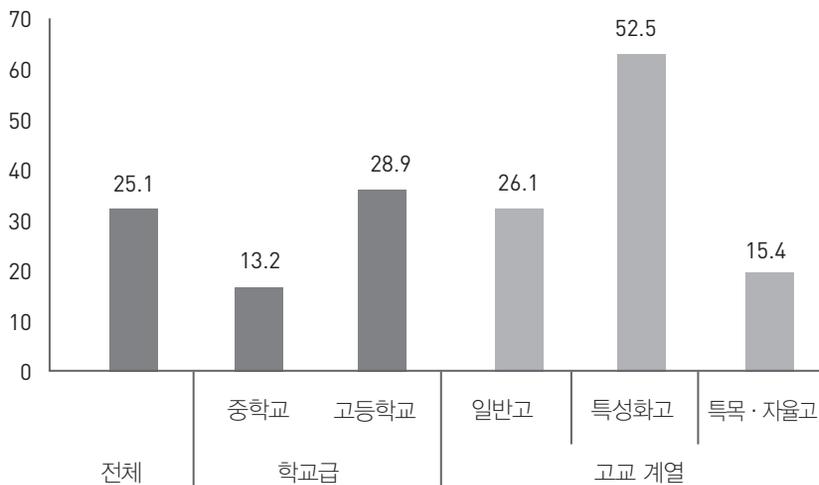


그림 1 아르바이트 생애경험율 (단위: %)

● 청소년 5명 중 1명 비율로 최근 1년 간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 보유

- 최근 1년 간(2013.6 - 2014.5)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 조사 결과, 응답자의 18.2%가 지난 1년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8.4%, 고등학생 21.3%로 차이를 나타냈으며, 고교 계열별로는 특성화고 학생은 44.9%가 지난 1년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답해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가 일상화 되어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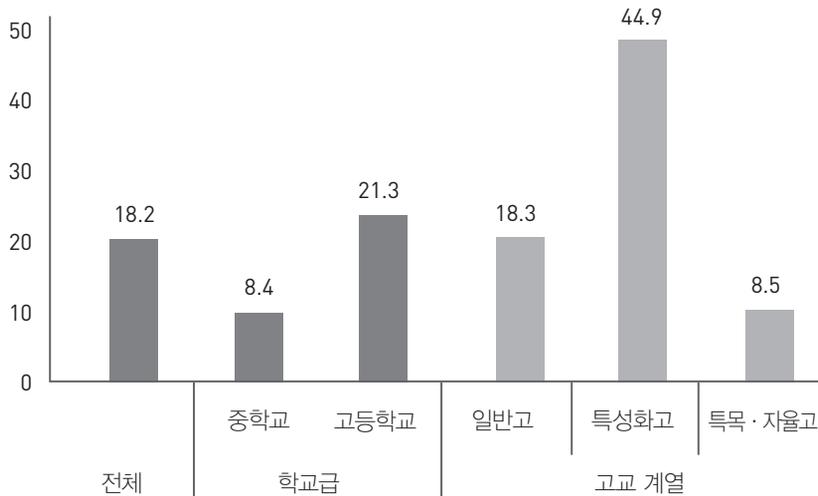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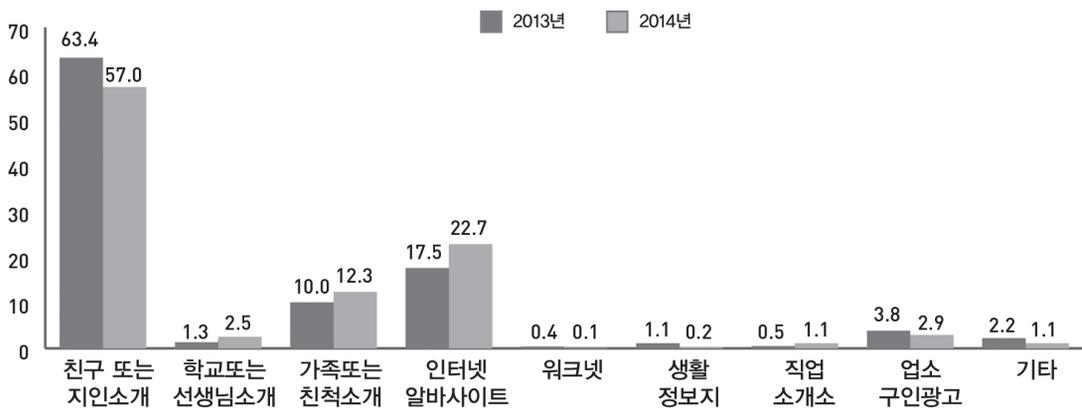


그림 2 지난 1년 간 아르바이트 경험율 (단위: %)

■ 구직 경로

●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한 구직 증가

- 최근 1년 사이에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를 조사한 결과, 친구 또는 지인 소개로 구했다는 응답이 57.0%로 가장 높고,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구했다는 응답이 22.7%로 그 뒤를 이음.
- 2013-2014년 추이를 살펴보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했다는 응답이 17.5%에서 22.7%로 증가해, 인터넷을 통한 구직 비율이 증가함을 시사함.



※ 주: 2013년 n=1,484, 2014년 n=743

그림 3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 (단위: %)

■ 아르바이트 업종

-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종으로는 음식점 서빙, 전단지 배포가 가장 많음.
 - 가장 최근에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 조사 결과, 음식점 서빙이 32.8%로 가장 많고,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착) 22.4%, 뷔페·웨딩홀 안내/서빙 18.0%, 24시간 편의점 점원 9.3%, 패스트푸드점(피자, 치킨) 점원 7.3% 순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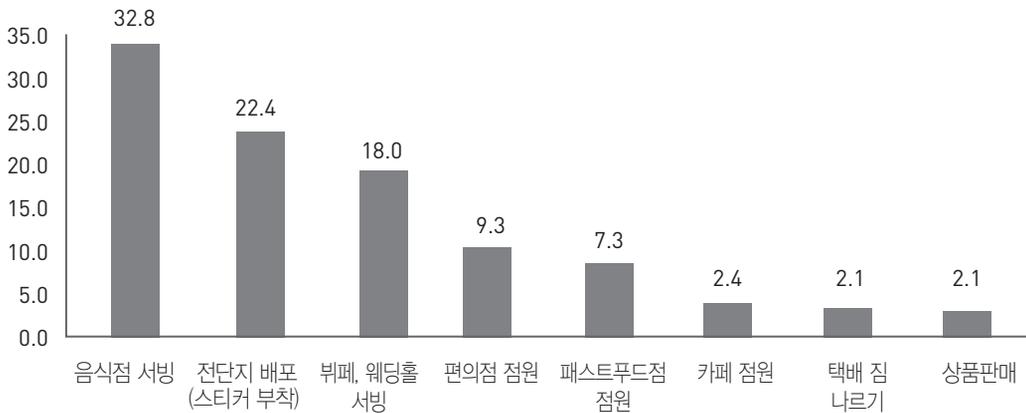


그림 4 가장 최근에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 상위 업종 (단위: %)

■ 서류 작성 및 제출 여부

- 저조한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
 - 근로계약서, 부모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작성 비율 조사 결과, 전년(2013년) 대비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준수율이 대단히 미흡한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25.5%에 불과했고, 부모동의서 제출 비율 36.9%,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비율 20.7%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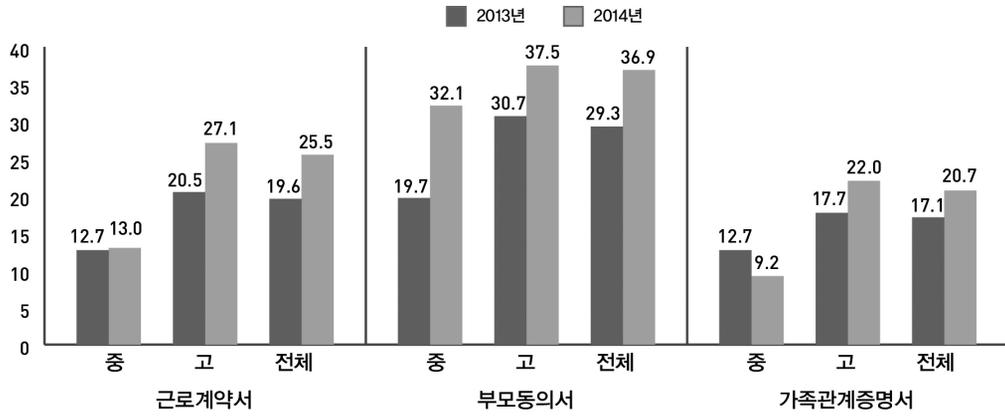


그림 5 서류작성 및 제출 여부 2013~2014년 비교 (단위: %)

■ 시간 당 임금 수준

- 5천원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응답이 14.8%를 차지하였고, 대부분 5천원~6천원 사이의 시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파악됨(5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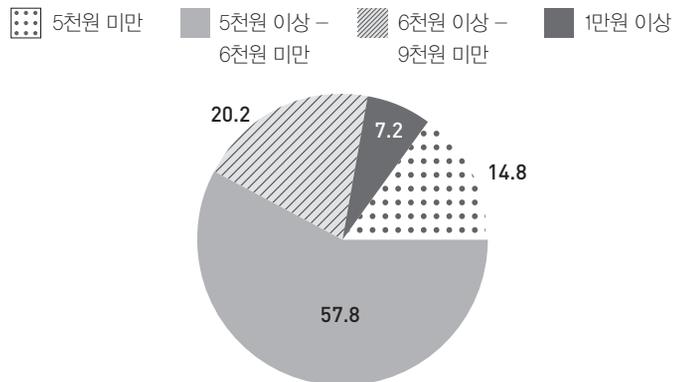


그림 6 시간 당 임금수준 (단위: %)

■ 부당처우 경험

- 부당처우 유형별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임금 체불이나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부당처우가 가장 흔한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초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이 19.0%,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했다는 비율이 17.5%,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늦게 받았다는 비율이 16.4%로 나타남.
- 그 밖에 맡은 일 외에 다른 업무를 억지로 했다는 응답 비율은 16.1%, 고객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다는 응답은 12.5%, 고용주·상사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9.7%로 나타났음.
- 임금 관련 부당 처우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나타낸 데 비해, 여타 응답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감소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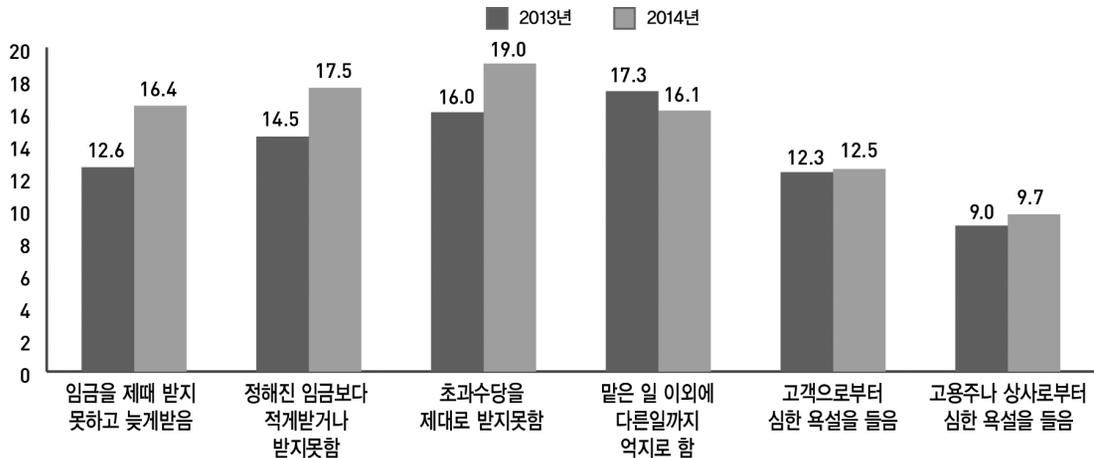


그림 7 2013-2014년 부당처우 유형별 경험 비율 (단위: %)

■ 연소자 근로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

● 연소자 근로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지속적 홍보 필요

- 정부에서 정한 최저 임금 수준을 알고 있다는 응답 71.1%, 청소년을 유해한 업종에 고용할 경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 86.7% 등으로 나타나 연소자 근로보호 제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 수준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여전히 인지도가 50%에도 이르지 못하는 주요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특히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보호구제 장치인 안심알바신고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20% 수준에 불과했음. 그 밖에 ‘일주일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도 21.6% 수준에 그쳤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다 부당처우를 당할 경우 도와주는 신고전화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도 33.4%에 불과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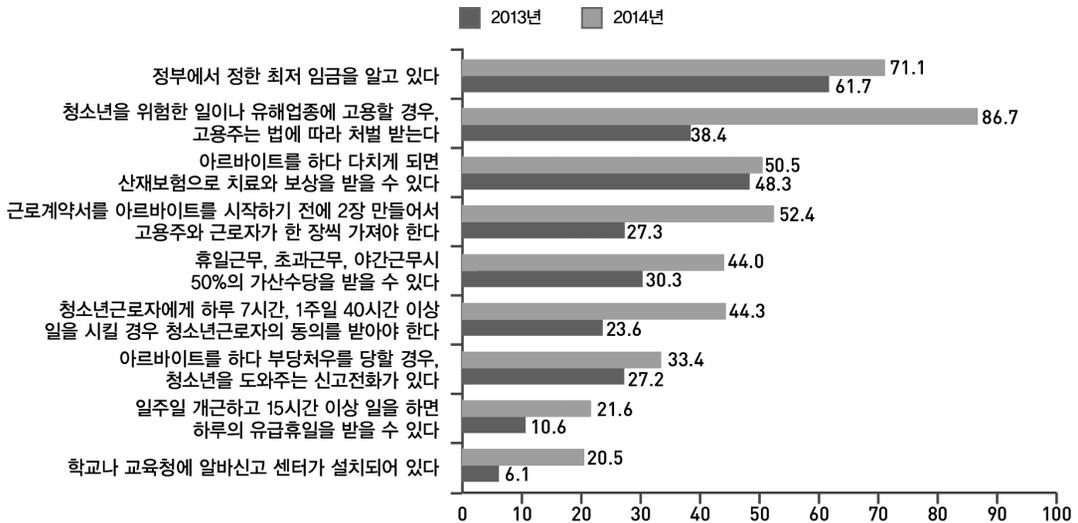


그림 8 연소자 근로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 (단위: %)